

'Impression' ... 전주문화재단, 정치현 작곡발표회 일상 속 포착된 찰나의 순간

내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공감할수 있는 소재 포착
움직임·소리로 재구성·표현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정치현의 작곡발표회 'Impression'을 23일 저녁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mpression(인상)의 의미는 일상 속 포착된 찰나의 순간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상주의는 음악사에서 말하는 인상주의와 달리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포착해 움직임과 소리로 재구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예술의 본질은 시각과 청각의 자극을 감정으로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다시금 표현해냄을 알려주고, 5가지 이야기 Impression(I, II, III, IV, V.)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룰 예정이다.

정치현씨는 "일상, 공감이라는 소재를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대중들에게 순수예술 장르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아날로그 사운드와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시·도민들에게 참신함을 선사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전주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를 발굴 지원해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토양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전주문화재단은 신진예술가의 창작품 제작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리뷰를 통해 선정자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며 "선정자와 전문

가를 1:1 매칭해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평론 글을 받는 형태로 11월까지 진행되는 실험정신 가득한 신진 예술가의 작품들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무료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감성포크의 대표주자 양하영 '가을밤 7080 추억의 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인 '가을밤 7080 추억의 콘서트'가 열린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김제시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80년대 한마음이라는 혼성 듀오로 활약한 포크 여제 양하영이 출연하여 그때 그시절 추억속 여행을 안내하는 히트곡 '가슴앓이', '갯바위', '친구라 하네' 등의 노래를 통기타 연주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색소폰과 피카션 연주로 가을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마련했다.

관람권 예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n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악계 대표 명인·명창들 만나러

국립민속국악원, 28일 국악콘서트 '다담' 서
신영희·안숙선 명창·정화영 명고 출연



신영희



안숙선



정화영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당대 최고의 국악인 신영희, 안숙선, 김영자 명창과 정화영 명고가 출연해 만경 김소희라는 공통점으로 한평생 소리 도반의 길을 걷고 있는 명창들의 지난했던 소리 공부 과정과 스승 만점에 대한 소회,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이 되기까지 한평생의 소리 여정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통해 국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철학과 인상 깊었던 국악인들의 추억 등을 소재로 주옥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따뜻한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각 명창들의 공작은 소리도 함께 감상해 보는 자리를 통해 그 가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50명)로, 예약은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열린의회, 알찬의정 제8대 순창군의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제8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천년의 장맛! 화려한 경관!
맛과 멋의 고향
순창으로 오세요!!!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



'제1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이 22일 열린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은 이영란씨(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를 포함한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즐거로운 뜨개생활 위한 안홀더'

이영란씨,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 최우수... '용기 내서 창업 도전하길'

'제1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이 22일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실현 가능한 창업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인큐베이팅(창업보육 및 설립준비)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아이디어 공모를 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 본선 진출작 10편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22일 열린 3차 본선 대회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창의성, 효과성 등이 우수한 최종 5팀을 선발,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장려상 30만원(2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영란씨의 '즐거로운 뜨개생활을 위한 쓰리웨이 안홀더' 아이디어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력과 개발능력, 성장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 이영란씨는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사업화와 경쟁력에 대한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와 조언을 받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변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에 센터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 여성 창업자와 기 창업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여성들의 참여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도내 여성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여성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 창업 상담사 배치와 여성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창업동아리(멘토 지원),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리마켓(상시문영)과 창업보육실(2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센터 홈페이지(jtwc.re.kr)나 취업지원팀 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내 미술교원 작품 '한자리'

전북중등미술교원전 개막
'2020 교육의 유산' 이 주제
30일까지 교육문화회관서

전북지역 미술교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데서 감상할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30회 전북중등미술교원전'이 오는 30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올해 작품전의 주제는 '2020 교육의 유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창의적인 공교육을 이끌어가는데 전력하고 있는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 교원 62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 창작한 선생님들의 작품에는 따듯한 열정, 사랑이 스며있다.

여기에 교육 현장의 열정을 더해 한 편의 캔버스와 한지, 돌이나 나무, 흙 등에 예술 교육의 확산을 위한 역량을 담아냈다.

이우영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긴 장미와 태풍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수확의 계절이 찾아온 만큼 한 폭의 그림처럼 풍요로운 색채로 꾸며주는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느끼길 희망한다"면서 "어려운 시기 미술 창작활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보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